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sup>22</sup>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And Jehovah God said, Behold,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and now I see he has put forth his hand, and taken also of the tree of life, and eaten, and live to eternity,* <sup>23</sup>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Therefore Jehovah God sent him forth from t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sup>24</sup>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And he made to dwell from the east toward the garden of Eden cherubim, and the flame of a sword turning itself, to keep the way of*

오늘 본문은 태고교회 후손들 중 선악과를 범한 네 번째 후손부터 홍수로 멸망한 마지막 일곱 번째 후손들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비록 그 선조가 천적 인간들이었어도 점점 주님보다 자기를, 천국보다 세상을 바라보다가 지극히 육(肉, *corporeal*)이 된, 그래서 거듭남 이전 상태, 곧 창세기 1장 2절의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로 돌아가 버린, 즉 주님으로 말미암은 모든 천적 영적 선과 진리는 물론, 후대로 갈수록 그나마 세상에서 습득한 요만큼의 자연적 선과 진리조차 모조리 박탈당한,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짐승 수준으로까지 떨어져 결국 종말을 맞이한, 그러나 주님 신앙의 신비가 어떤 건지는 또 알아서 그 와중에도 계속 그 신비안으로 들어가고자 했던, 그래서 그것만큼은 주님이 절대 금하신 그런 태고교회 후손들 이야기입니다.

이 태고교회 시대가 실제 역사로는 얼마나 오래, 즉 수천, 수만, 혹은 수십만 년 그 이상이었는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장구한 세월에 걸친 교회 시대 이야기를 그러나 이렇게 지극히 함축적으로 간략하게 다룬 것입니다.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스베덴보리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는 너무나 깊은 아케이나가 가득하여 그걸 다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현 독자들, 곧 과거 영광과 천사적 통찰력인 퍼셉션을 모두 상실하고 대신 양심이라는 것으로 새롭게 장착된, 홍수 이후에 일어난 새로운 인류로 오늘에 이른 지금 우리의 형편과 역량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 아주 조금, 그저 살짝살짝 언급하는 수준으로만 지금은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나중에 주님이 허락하시면 그때그때 깊이 다루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는 이런 질문입니다.

‘생명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이걸 왜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까지 두어 막으신 거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배경지식들이 좀 필요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속뜻 이야기를, 그리고 그러면서 잠깐 지혜의 여섯 수준과 성경 66권 이야기를, 그리고 이어

내적(內的, *internal*)이라는 거 및 걸 사람, 속 사람 이야기 순으로 말씀드린 후, 이 모든 이해를 가지고 오늘 제목,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에 대한 간략한 결론으로 마칠까 합니다. 살짝 용두사미와도 같은 전개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들 아케이나는 아직 우리에게 이해가 어려운 수준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양해 바랍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전에는 저도 오늘 본문을 그냥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이미 선악과를 범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생명 나무 열매까지 먹어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까지는 꼭 막아야겠다 마음먹으신 걸로,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벌을 받아 더이상 낙원에서 못 살고 쫓겨난 걸로, 또 이들이 다시 낙원으로 몰래 숨어들까 봐 엄청난 경비병들을 세워 지키신 걸로 이해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아마 대부분의 분들도 다 그저 이 정도로 이해하고 계시지 싶습니다. 주위 몇몇 분들께 불쑥 여쭙보니까 비슷들 하시더군요. 워낙 창세기 첫 부분은 알쏭달쏭하니까 약간의 신화적 요소 정도는 감안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해야지 뭐, 그런다고 무슨 신앙생활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

네, 맞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글자대로만 읽으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정상이며, 뭐 신학을 하시거나 하여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더 깊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원어를 살피며 깊게 들어가셔도 그래도 그건 그냥 겉뜻일 뿐인 것이, 어느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의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본다고 해서 그걸 가리켜 우리와 달리 지금 저 의사는 저 사람의 몸이 아닌 영을 보고 있어 하지는 않듯 말입니다.

주님은 신(神, *the Divine*)이십니다. 주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과 다릅니다. 인간이 읽어야 해서 지상의 언어로 기록하셨을 뿐, 주님의 말씀, 신의 말씀은 다릅니다. 전에 주님의 지혜의 여섯 단계 내지는 수준에 대해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님은 모든 지혜의 발원지이시고, 3단계부터가 삼층천 천사들, 곧 천적 천사들 수준입니다. 1, 2단계는 삼층천 천사들조차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4단계는 이층천, 곧 영적 천사들, 5단계는 일층천, 곧 천적 자연적, 영적

자연적 천사들 수준이며, 맨 마지막 여섯 번째가 지상의 언어로 기록된 말씀의 수준입니다. 지혜의 각 단계마다 수천수만 배 차이가 난다는 점을 생각하면, 방금 말씀드린 주님의 지혜와 우리 인간의 지혜 차이가 얼마나 엄청난 건지, 왜 주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사55:9)라 하셨는지, 말씀을 글자의 뜻으로만 읽는 우리의 이해와 실제 그 속에 담긴 주님의 아케이나의 차이가 어떤 건지는 사실 가늠조차 안 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55:9)

사람이 영과 육으로 되어 있듯 말씀 역시 속뜻과 겉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베덴보리는 66권 성경 중에서도 오직 속뜻, 즉 아케이나가 있는 성경만 말씀(*The Word*)이라고 알려줍니다. 즉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라야만 말씀이며, 그 이유는 그래야만 그 안에 속뜻, 곧 말씀의 영이라 할 수 있는 아케이나가 들어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속뜻을 ‘숨은 뜻’이라 하여 비의(秘義)라 하고, 라틴어로 아케이나(*arcana*)라 합니다. 말씀이 아닌 서신서들을 비롯, 신구약 여러 나머지 성경들의

창3:22-24, AC.298-313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역할은 속뜻이 있는 말씀들을 환히 비추는 역할, 곧 조명 역할입니다.

참고로, 성경 66권 이야기가 나왔으니 잠깐 그림 66권 중 말씀인 성경 목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보에도 있는데, 구약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등 모세오경과,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등 역사서, 그리고 시편 전체 및 이사야,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등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체 등 29권이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등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하여 합 5권으로 신구약 총 34권이 말씀, 곧 속뜻 아케이나가 있는,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The Word*)입니다. 이와 관련된 글 번호는 10325번입니다.

부언하자면, 어떤 성경이 참된 말씀인지를 알았으니 그러므로 앞으로 말씀인 성경과 그렇지 않은 성경을 동등하게, 또는 후자를 더 높이 여겨 인용하거나 무슨 교리화 하거나, 나아가 거기에서 본문을 취해 무슨 설교를 하거나 하는 태도는 극히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마

음을 힘드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성경을 무슨 금서 대하듯 하거나 죄악시할 것까지는 없습니다. 지난 이천 년에 걸친 성경 66권 정경화 작업을 통해 이들 나머지 32권 또한 오늘날 신구약 성경에 포함된 것 역시 분명한 주님의 섭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는 이들 글에서 신앙의 좋은 것, 유익을 취할 수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도 정말 중요한 건 육이 아니라 영이듯 말씀도 정말 중요한 건 겉뜻이 아니라 속뜻입니다. 천사들이 말씀을 속뜻으로 읽어 주님과 결합하듯 그들처럼 우리도 주님과 결합할 수 있으려면 말씀을 속뜻으로 읽어야 합니다. 천사들은 말씀을 속뜻으로, 내적으로 읽습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 내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 존재들은 오직 영적인 것, 내적인 것만 접할 수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존재가 자연계를 다이렉트로, 자연계에 있는 존재가 영계를 다이렉트로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직접 접촉할 수 없습니다. 두 세계는 서로 다른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사람들이 천사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 사람의 영이 열려 그 사람의 영이 천상 영계의 존재인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변모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및 모세와 엘리야를 본 것 역시 그들의 영으로 본 것이며, 부활하신 무덤 안 천사, 그리고 주님을 본 것 역시 마리아의 영이 본 것입니다. 이렇게 영계는 영계, 자연계는 자연계이며, 그래서 영적 존재, 내적 존재인 천사들은 주님의 말씀을 영적인 뜻, 내적인 뜻인 속뜻으로 읽습니다.

육이 영을 담는 그릇이듯 겉뜻은 속뜻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릇보다는 거기 담긴 내용물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의 사후, 영이 되어야만 이 속뜻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주님의 자비, 곧 주님의 허락하심으로 스베덴보리를 통해 이제 ‘인류도 생전에 어느 정도는’ 말씀의 속뜻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스베덴보리 노년에 친히 창세기와 출애굽기,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대한 속뜻을 풀어 주셨고, 그때 그는 지상의 언어 중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을 언어인 라틴어로 받아 적었습니다. 덕테이션을 한 것이지요. 라틴어는 당시 상류사회, 학자들의 언어이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스베덴보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주석인 ‘아케이나 코엘레스티아’(Arca na Coelestia, 天界秘義)를 1749년에 시작, 1756년에 마쳤습니다. 스베덴

보리는 1688년 생(生), 1772년 졸(卒)이므로 그의 나이 61세에 이 주석작업을 시작, 68세에 마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주석은 1757년에 시작했습니다.

방금 제가 ‘인류도 생전에 어느 정도는’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이유는, 비록 그 속뜻을 지상의 언어로 이렇게 기술했다고 해서, 그리고 사람이 그걸 읽는다고 해서 바로 똑똑 이해한다는 것은 지난 수년간 제가 경험한 바로는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 말씀의 속뜻은 완전히 내적(內的, *internal*)인 반면, 읽는 우리는 완전히 외적(外的, *external*)이기 때문인데요, 이건 마치 육(肉, *corporeal*)이 영(靈, *spiritual*)을 일상 가운데 전혀 못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영을 정말 거룩하고 순결, 순수하게 경험한다면, 즉 주님이 잠시 우리 영을 열어 들어 올리셔서 천계 천사들과 함께 있게 하신다면, 우리가 지상에서, 즉 몸 안에서 영성(靈性), 영성하는 게 사실은 얼마나 탁하며, 다분히 육적, 감각적, 물질적인지를 확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천국의 천사들은 항상 주님을 향하여 얼굴을 든다고 합니다. 마치 해 바라기가 해를 바라듯 말이지요. 그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렇게 해서 그들은 늘 주님과 연결되며, 늘 주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다고 합니다. 지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에서도 소위 성인(聖人)이라 하는 사람들, 아니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상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하며, 주님 사랑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천사와 다를 바 없어 비록 아직은 몸은 세상에 있지만 영은 이미 천국에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요.

늘 주님을 향할 때 영안이 열린다면, 반대로 늘 주님을 등질 땐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의 사람이 되고, 육의 사람이 되어 도무지 이런 아케이나를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늘 주목하는 그 대상이 세상이기 때문인 것인데요, 비록 기독교인이요, 교회를 다닌다 하여도 그 사고방식이 철저히 세상적, 육적, 감각적이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로 차이가 안 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등지는 순간, 내면이 단혀 주님으로부터 천국을 통해 흘러들어오던 모든 좋은 것이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 주님으로 말미암은 빛, 다른 말로는 주님의 성령이 필요합

니다. 성령은 주님의 진리의 빛, 삼위가 하나로 계신 주님으로부터 발출, 발현되는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스베덴보리를 통해 계시하신 이 아케이나를 읽을 때, 이 아케이나, 말씀의 속뜻이 이해가 되려면 오직 주님의 빛을 받아야만 가능함을 경험적으로 고백합니다. 스베덴보리의 저술을 수십 년 함께하신 어느 목사님 말씀, 그래서 스베덴보리가 기록하기를, 이 아케이나를 듣고 깨닫는 사람은 만 명 중 한 사람도 쉽지 않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신교 목사로서 스베덴보리와 개신교 중간에서 혹시 무슨 브리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여 지금 이 주석을 쉽게, 가급적 쉽게 풀어 번역하는 일을 3년째 하고 있는데요... 제 역량이 여기까지인지 아무리 애를 써도 걸으로는 아무런 소득이 없어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주신 소명으로 알고, 이 길을 먼저 가신 선배 목회자들의 뒤를 따라 묵묵히 기운 다 하는 날까지 걸어갈 생각입니다. 제 개인 블로그에 하루에 한 절씩 번역하여 올리고 있는데, 창세기와 출애굽기 및 요한계시록까지 그 전체 절 수를 계산해보니 대략 한 십 년 걸리더군요. 그러면 제 나이 7학년 2반... 과연 할 수 있을지... 주님의 불드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따라 제 애길 많이 했네요. 그럼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석의 풀이를 본 후, 설명을 더하겠습니다. 아케이나 글 번호로는 298번(22절), 305번(23절) 및 306번(24절)입니다.

22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엔 단수로(*in the singular*), 그리고 나중에 복수로(*in the plural number*) 언급되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주님을, 그리고 동시에 천사들의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그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천적 인간이 되었고(天的, *had become celestial*), 그래서 지혜와 지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을까'라는 것은 그가 절대 신앙의 신비들을 배워서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live to eternity*)의 의미입니다.

23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는 모든 지성과 지혜를 박탈하는 것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는 육의 상태가 되는 것, 곧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가 모든 지성과 지혜를 박탈하는 것임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산', 그리고 '에덴'의 상징을 생각하면 분명한데요, '동산'은 지성, 혹은 진리에 대한 이해를, 사랑을 상징하는 '에덴'은 지혜, 혹은 선에 대한 의지를 각각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가 육의 상태, 곧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감을 상징한다는 것은 위 19절 말씀에서 이미 보았는데, 그 말씀과 유사하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3:19)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는 그에게서 선에 관한 모든 의지와 진리에 관한 모든 이해를 깡그리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까지 분리가 되어 더는 사람이라 할 수 없을 지경이 되도록 말입니다.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는 그가 무슨 신앙의 신비와 관련된 것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동산 동쪽**’은 천적(天的, *the celestial*)이요, 여기서 지성이 나오기 때문이며, ‘**그룹들**’(cherubim)은 저런 사람이 신앙과 관련된 것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두루 도는 불 칼**’은 광적(狂的, *insane*) 욕망과 그로 인해 고착된(固着, *persuasions*) 자아 사랑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그는 정말 신앙의 신비, 곧 ‘**에덴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곧바로 육적(肉的, *corporeal*)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휩쓸려 버리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의 목적, 즉 거룩한 것들에 대한 신성모독을 막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해들이 되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번 듣고 이해하기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시지요? 이걸 제가 여

러분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아주 충분히 걸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보다는 이 세상을, 영보다는 육을, 주님보다는 나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위 내용에 대한 더욱 자세한 풀이는 제 블로그 창세기 3장에 있으니 참고하세요.

그럼 위 주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사람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데요, 사람의 걸 사람과 속 사람에 관한 이해입니다.

이 걸 사람, 속 사람 이야기도 또 정말 쉽지 않지만... 각 사람의 속 사람은 일종의 영적 지문과도 같아 모든 사람이 저마다 다 다르고, 그래서 그 사람 고유의 어떠함이며, 사후 천국 혹은 지옥은 바로 이 속 사람의 어떠함으로 결정됩니다. 즉 이 속 사람이 천국에 합당하면 그는 해당 천국으로 가고, 반대로 지옥에 합당하면 마찬가지로 해당 지옥으로 배정됩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생전에 정말 힘써야 할 것은 바로 이 속 사람의 어떠함입니다. 이 속 사람의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어떠함은 주님의 신성(神性, *The Divine*), 곧 주님의 선과 진리로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의 신성 함양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영원히 지낼 곳이 바로 이 주님의 신성으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무슨 자격이나 라이선스, 허락을 받아 들어가는 데가 아니라 이를테면, ‘살 수 있으면 살아봐, 지낼 수 있으면 지내봐’ 하는 나라입니다.

겉 사람은 육과 감각, 물질인 우리를 영, 곧 속 사람으로 연결해주는 연결다리, 교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바로 건너갈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모든 감각과 감정, 애정, 감성과 합리, 이성, 논리 등이 다 이 겉 사람에 속한 기능들입니다. 이 겉 사람이 순기능을 하면 우리는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도 아름다워지지만 반대로 역기능을 하면 겉 다르고 속 다른 사람, 교활한 사람이 됩니다. 천국에 절대 부적격한 사람이 되지요.

사후 첫 번째 상태는 이 겉 사람이 걸러지는 상태입니다. 이때는 아직 각 사람의 겉모습이 남아있어 가족, 혈연을 포함, 모든 생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다 나를 알아보며,

그래서 반갑게 만납니다. 그러나 사후 두 번째 상태는 겉 사람의 역할이 끝나 휴면 상태에 들어가고, 드디어 각 사람의 본 모습인 속 사람이 겉으로 드러납니다. 이때부터가 진짜 영이 되는 것이며, 이 상태로 이제 영원히 천국에서든, 지옥에서든 배정받아 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던 여자가 영은 정반대, 곧 거의 괴물과 다를 바 없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겉모습은 쭈글쭈글 참 볼품없던 할머니가 그러나 반대로 그 영은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고로, 모든 영은 사후 젊음의 최전성기 때 모습으로 돌아가며, 이 두 번째 상태가 되면 생전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심지어 가족들조차 절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상 혈연관계는 지상까지만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겉 알고는 있지만 인정은 안 하는 것과, 알고 인정까지 해 놓고서는 다시 부인하는 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후 두 번째 상태인 그 속 사람까지 망가져서 지옥에서조차 격리되어야 하며, 이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신성모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말씀,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sup>31</sup>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게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sup>32</sup>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sup>33</sup>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마12:31-33)

하신 말씀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천적 인간의 후손으로서 천적이라는 게 뭔지를 맞본 후손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며, 주님 사랑, 주님 신앙의 그 신비를 맞본 후손들, 그러나 선조들처럼 오직 주님만 사랑하지를 못하고, 대신 자신과 세상을 향해 계속 시선을 돌리더니 결국은 자기 사랑, 세상 사랑에 빠져 돌이킬 수 없게 된, 그래서 다음 히브리서 본문처럼

<sup>4</sup>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sup>5</sup>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sup>6</sup>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

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sup>7</sup>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sup>8</sup>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6:4-8)

이렇게 무너지게 될까 봐, 즉 그 속 사람이 뒤죽박죽될까 봐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사랑하시고 끝까지 배려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속 사람마저 무너지게 되면 결과 속이 선과 진리로 하나가 되든, 악과 거짓으로 하나가 되든 하나 되어 결합된 상태가 영계의 삶인데, 이런 영계에서조차 영원히 하나된 상태가 되지를 못하는, 마치 자석의 N극과 S극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는 그야말로 끔찍, 비유하자면, 지옥들의 지옥과도 같은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알고 시인, 즉 자기 의지로 받아들여 내면화한 것, 곧 주님 신앙이지요, 이를 다시 부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향한 신성모독인 것이며, 앞의 본문들이 바로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사랑이신 주님조차

##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신 이유’

더는 어떻게 하실 수가 없으신 상태로 떨어지는 것이어서 사람이 이런 상태로 전락하는 것만큼은 절대로 절대로 꼭 막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그냥 무슨 상태가 영원히 불안정하게 된다는 거 같은데... 그게 뭐 그리 큰 문제가 되는 걸까?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 저도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이지만... 혹시 이런 게 아닐까 유추하여 생각해 봅니다.

아직 몸 안에 사는 우리는 오감이라는 감각의 세계 안에서 삽니다. 오감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그리고 만지는 것이지요. 놀라운 것은 이 오감 또한 영의 걸 사람에게 속한 것으로서 사후 우리가 이 몸, 곧 육체를 벗고 영체를 입게 되면, 그때는 이 오감이 몇 배씩이나 더 향상, 확장된다는 겁니다. 더욱 예민해진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편으론 아주 인텔리해지는데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론, 이렇게 발달된 촉각으로 지옥의 고통을 겪게 되면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 육체 안에서 겪는 모든 통증이 사후엔 몇 배나 더 커진다고 생각하면... 아이고, 생각만 해도 정말 몸서리쳐지고 끔찍합니다.

사후 영이 된 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하는 상태가 영적 고통의 상태인 데요, 그것은 마치 생전에 팔다리가 생으로 찢어지는 고통과도 같다고 합니다. 모든 악과 거짓의 결과인 죄에는 벌이 따르지요. 비록 악과 거짓으로 하나 되었어도 그래서 지옥의 사람들은 벌을 받는 것이지만, 이들 영이면서도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사람들은 벌 차원을 넘어서는 진정한 고통 중에 놓이게 되며, 그것도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홍수로 멸망한 태고교회 후손들은 그래서 지금도 지옥에서도 격리, 큰 바위로 눌린 곳에 모여있다고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의 신성, 곧 주님의 선과 진리를 알고 시인, 진심으로 받아들였으면, 이후 영똥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마치 깨끗이 씻겨놓았더니 다시 똥오줌 흥건한 바닥에서 좋다고 똥구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부디 우리를 깨끗하게 보존하여 주시기를 주님께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2022-06-12(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